

# 개혁신앙이란? (Reformed Faith)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비텐베르크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는 루터 1517년 10월 31일

개혁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께 영예를 100% 돌리는 신앙이요 신학입니다. 개혁신앙은 또한 역사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역사적(historical)이라 함은 단지 오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진리 됨을 실증한 역사적 신앙(historic faith)을 의미합니다. 사도들, 초대 교회의 교부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스펀진, 헛필드, 에드워즈, 현대에는 로이드-존스, 김홍전 박사 등으로 대변되는 선진들이 잘 가르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을 존중합니다. 역사의 가도에서 대세는 아니었을 지라도 늘 참 신앙의 주류(主流)로서 흘러온 역사적 신앙이 찬연히 빛나던 때가 종교개혁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밝게 빛난 것은 아무래도 주위가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후 약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단(異端)과 사설(邪說)은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이제는 정통 기독교의 이름 아래 많은 신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점에서 역사적인 신앙고백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은 책들이 '성경적'이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릅니다. 비록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졌지만 개혁시대에 밝게 빛나던 신앙고백은 미미하게만 들립니다. 개신교회라고 이름 붙은 교회들도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Five Solas와 같은 역사적인 개혁 신앙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끊임없이 흘러 왔고 또 흐를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1. 우리가 믿는 복음 - Sola Fide!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구원을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가 핵심이다. 이것을 복음(εὐαγγέλιον,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구원에 필요한 50%를, 아니 99%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나머지 1%를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100%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신뢰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단' 이 될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공로에 보탬이 되거나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전부 다!(요 19:30) 그러므로 그에게만 마땅히 모든 영광을 돌리자!

## 2. 다섯 가지 '오직' - Five Solas

Soli Deo Gloria!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나머지 네 가지 Sola는 Soli Deo Gloria! 아래로 흐르는 큰 정신이다. 성경에 최고 권위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무엇과 권위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며, 고로 구원의 큰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그 일의 조금치라도 인간의 선택 또는 능력과 연관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하고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다.

### (1) Sola Scriptura - 오직 성경!

진리나 아니나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 (2) Solus Christus - 오직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인간의 상태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로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사후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인 영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역조창생의 죄 값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는 길 뿐이다.

내가 평생을 선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도 나의 무한한 죄책을 다 갚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만이 사람을 구원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행 4:12)

### (3) Sola Gratia -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혀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인간 쪽에서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순전히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구속은 은혜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등 그 무엇을 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일에 있어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요구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은 순전한 은혜가 아니라 대가요 샀이 된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

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 (4) Sola Fide - 오직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 자신이 선하게 살려는 노력을 한 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는 결코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자는 죄의 종 된 자리에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실증할 수 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2:4)

### (5) Soli Deo Gloria - 오직 주께 영광!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며 또 하시는 일이다. 거기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돕거나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 7:9-12)(\*) 출처 / Pneumati / Seeking the preeminence of Christ in all aspects of life

종교개혁의 시발점 비텐베르크 도시 / 비텐베르크(독일어: Wittenberg)는 독일 동부 작센안halt 주에 있는 도시이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곳으로 유명하며, 정식으로는 Lutherstadt Wittenberg라고 한다. 1180년 문헌에 처음 언급되었고, 1260년 작센비텐베르크 공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후 작센 선거제후에 속했다. 15세기 말, 작센의 주요 도시가 되었으며, 1502년 비텐베르크 대학교가 개교하였다.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 교수이던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주도하였다. 필리프 멜란히톤도 곧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왔다. 루터가 95개 논제를 문에 써 붙인 성벽 교회, 루터가 강론한 시립 교회, 루터가 살았던 수도원 등이 남아 있으며, 이들 종교개혁 관련 유적지들은 루터의 고향 아이슬레벤의 유적지와 함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는 할레의 대학교와 합병하여 현재 할레에 있는 할레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로 남아 있다.